

# 7일 완성 샘플북

《중등 처음 신문》 도서 활용안

이슈

배경

관점

심화

4단계 워크로  
비문학 독해가 쉬워지는

## 중등 처음 신문



## ★《중등 처음 신문》샘플북 이렇게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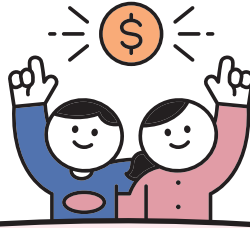
✓ 샘플북을 통해, 책 속에서 뽑은 7개 TOPIC을 미리 만나요.

✓ [이슈-배경-관점-심화] 흐름을 따라가며 읽어요.

✓ 비문학 독해의 기초를 다져요.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중등 처음 신문》본 책으로 Go Go!

| 회차 | 토픽 분야 | 주제어               | 제목                            | 읽은 날 | 확인 |
|----|-------|-------------------|-------------------------------|------|----|
| 01 | 사회·문화 | MBTI 열풍           | 당신은 외향형?<br>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요!     | 월 일  |    |
| 02 | 과학·사회 | 딥페이크              | 갑소사!<br>그 영상이 가짜였다고?          | 월 일  |    |
| 03 | 정치·사회 | 저출생               | 유치원 자리에<br>요양병원 생겼네...        | 월 일  |    |
| 04 | 경제·사회 | 로봇의<br>등장과<br>일자리 | 로봇이 빼앗은 내 일자리                 | 월 일  |    |
| 05 | 환경    | 그린워싱              | 무늬만 친환경.<br>가면을 벗어요!          | 월 일  |    |
| 06 | 문화    | 도파밍 현상            | 보고 또 봐도 모자라...<br>도파밍 못 멈추겠어! | 월 일  |    |
| 07 | 국제·과학 | 우주 경쟁             | 반가워! 우주야!                     | 월 일  |    |



## 《중등 처음 신문》독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중등 처음 신문》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요?

① [이슈] → [배경] → [관점] → [심화]라는 흐름으로 구성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생각(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중등 처음 신문》에 실린 모든 기사는 [이슈] → [배경] → [관점] → [심화]라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슈]는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배경]은 이슈와 관련한 키워드에 대한 설명 또는 이슈가 나오게 된 갖가지 배경을 다룹니다. [관점]은 이슈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어요. [심화]는 그 밖에 우리가 더 알아둬야 할 것들을 살펴본 코너입니다.

## ② ‘비문학 글쓰기의 맛’을 살리려 접속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흔히 기사를 비롯해 비문학 분야 글을 두고 ‘경제적인 글’이라고 말합니다. 더 간결하게 압축하여 정보를 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등 처음 신문》에 실린 글은 기사문 특유의 경제성을 추구하고자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등 접속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 ③ 분야를 넘나드는 기사도 많아요.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국제/과학/스포츠 등 전 분야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죠. 그런 의미에서 《중등 처음 신문》은 여러 분야 기사들을 고루 소개합니다. 때론 경제와 정치, 문화와 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기사들도 있어요. 기자 둘 이상이 공동 취재하여 쓴 기사죠. 이를 통해 각각의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이해하고, ‘통합적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중등 처음 신문》 기자단



[정치/경제부 이진실 기자 [honest@책폴.com](mailto:honest@책폴.com)]

뉴스를 ‘쉽게’ 만나도록 기사를 씁니다.

[사회/교육부 눈밝음 기자 [brighteyes@책폴.com](mailto:brighteyes@책폴.com)]

‘더 관심 있게’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기사를 씁니다.

[국제/과학·환경부 송시아 기자 [worldwide@책폴.com](mailto:worldwide@책폴.com)]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사를 씁니다.

[문화/스포츠/연예부 안테나 기자 [antenna@책폴.com](mailto:antenna@책폴.com)]

‘더 입체적으로’ 소식을 만나도록 기사를 씁니다.



## 당신은 외향형?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요!

이슈

### 취업, 결혼에까지 활용되는 MBTI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MBTI는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성격유형 지표를 말합니다. 그저 재미로 내 성격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채용 및 결혼 업계에 서까지 MBT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MBTI를 적게 합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엔 특정 유형의 MBTI를 우대한다는 공고가 등장하기도 했죠. 한 취업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기업에서 E(외향) 인력을 뽑는데 I(내향) 지원자를 불러 굳이 면접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MBT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MBTI는 지원자 입장에서 자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최근 면접을 봤다는 한 직장인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해서 계획성이 있는 J(판단형) 성향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일부 결혼 정보 회사에선 초기 상담 단계부터 MBTI를 확인합니다. 결혼 정보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먼저 MBTI 제출하길 원한다”며 “이 자료 하나만으로 커플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장담할 순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커플 매칭률이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문화/스포츠/연예부 안테나 기자 [antenna@책플.com](mailto:antenna@책플.com)

사회/교육부 눈밝음 기자 [brighteyes@책플.com](mailto:brighteyes@책플.com)

## 배경

### 인간의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분류한 성격 검사

MBTI는 4가지 지표에 따라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성격 검사입니다. 1944년 미국의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에 기반해 만든 것입니다. 당시 MBTI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과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활용됐다고 합니다.

MBTI가 유행하게 된 건 2020년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혈액형, 별자리로 성격 유형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MBTI가 좀 더 다양한 성격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 관점

### "I는 거르고, E 위주로 면접 보게 해!"

MBTI유행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복잡한 성격을 정의 내리긴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선천적·후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셀프 검사인만큼 왜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탓에 사람의 성향을 큰 틀에서 알아보는 정도로 MBTI를 참고해야지 온 사회가 여기에 '과몰입'하는 게 맞느냐는 말도 들려옵니다.

MBTI에 따른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취업 준비생들도 있어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취업 시장에선 I(내향형)보다는 E(외향형)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 유전자·미생물 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도 등장

최근엔 MBTI를 넘어 참 다양한 ‘자기 분석’ 방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유전자·미생물 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 등도 자기 분석의 한 경향이죠. 유전자 검사의 경우 자신의 탈모, 비만, 피부 노화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 싶다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자기 분석은 사람들이 그만큼 ‘나’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나를 잘 가꾸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을 보여 준다”고 분석합니다.

### 덕분에 만나는 시사 용어

#### • 스펙

취업 관련 기사를 보면 많이 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스펙’이죠. 스펙은 ‘설명서’라는 의미의 스펙시피케이션(specification)의 줄임말로, 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MBTI가 유행인 시대, 채용 시 MBTI 결과를 제출하라는 기업 측의 말에 취업 준비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스펙인가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할 거 같나요?



### 수리수리 논술이

**Q1.** ‘MBTI’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기사에서 찾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

**Q2.** ‘MBTI 유행 현상’을 말해 주는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사에서 찾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다른 온라인 기사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

**Q3.** MBTI에 과몰입한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두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너 MBTI가 뭐야?”



|    | 주장                          | 주장에 대한 이유나 부연 설명                                                                                                            |
|----|-----------------------------|-----------------------------------------------------------------------------------------------------------------------------|
| 승현 | ○MBTI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되죠.        |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16개 성격 유형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스로 검사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오류도 많을 거고요. 이 자료를 취업이나 결혼 등에 반영한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
| 서정 | ○채용에서 적절히 반영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추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MBTI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시간 낭비도 줄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
|    |                             |                                                                                                                             |



# 압소사! 그 영상이 가짜였다고?

## 이슈

## AI가 만들어 낸 가짜 콘텐츠, 전 세계가 시끌

트와이스 등 K팝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성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면서 연예계가 시끄럽습니다. 기획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8월 30일 팬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이런 가짜 콘텐츠들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이미지가 유포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이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짜로 불리는 ‘딥페이크’ 콘텐츠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선 AI 기술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통해 ‘워터마크’로 불리는 ‘식별 표식’을 넣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막는 규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정치 분야뿐 아니라 전 사회에 걸쳐 강력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국제/과학·환경부 송시아 기자 worldwide@책폴.com  
사회/교육부 눈밝음 기자 brighteyes@책폴.com

## 인공지능이 만든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해 만든 영상 편집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죠. 딥페이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광복절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가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딥페이크가 긍정적으로 잘 활용된 사례죠. 반면, 이 기술이 잘못 이용되면 가짜 뉴스 등이 판을 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 규제를 강화해요! vs. 기존 법도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AI 규제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한 처벌이 없다면, 유명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이들도 가짜 영상, 사진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SNS 등에 올라온 일반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여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 콘텐츠가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될 경우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AI 기술 관련 연구 개발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처벌 법규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법을 또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중요해요!

가짜 콘텐츠가 늘어나는 때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중요해집니다. 플랫폼 기업이란, 검색 엔진, SNS 채널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뜻해요. 한 예로, 테일러 스위프트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졌을 때 X(옛 트위터) 등은 사용자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또는 '테일러 스위프트 AI'라고 검색하지 못하도록 잠시 검색 제한을 걸었습니다.

### 덕분에 만나는 시사 용어

#### •가짜 뉴스

“그거 가짜 뉴스잖아!” 누가 봐도 놀라운 뉴스여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온 적 있나요? ‘가짜 뉴스’는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를 뜻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들 대다수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냅니다. 가짜 뉴스는 온라인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그가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일종의 가짜 뉴스로 알려져 있어요.



### 수리수리 논술이

**Q1.** ‘딥페이크’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기사에서 찾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

**Q2.** 각각 ‘딥페이크 콘텐츠가 나쁘게 활용된 사례’, ‘딥페이크 콘텐츠가 긍정적으로 활용된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사에서 찾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다른 온라인 기사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

**Q3.**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두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    | 주장                      | 주장에 대한 이유나 부연 설명                                                                                    |
|----|-------------------------|-----------------------------------------------------------------------------------------------------|
| 해솔 | ○세게 처벌해야 합니다.           | ○저도 본 적 있어요! 외국 대통령이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감쪽같았죠. 이런 영상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겁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해요. |
| 정규 |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진짜, 가짜를 판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수업에도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
|    |                         |                                                                                                     |

유치원 자리에  
요양병원 생겼네...

## 이슈

## 유치원 입학생 27만 명으로 확 줄어

2024년은 우리나라에 ‘트리플 인구 절벽’이 몰아치는 해입니다. 트리플 인구 절벽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2024년 유치원에 입학하는 2020년생은 고작 2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대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줄어든 데 대해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학령 인구에 적용됐다”고 분석합니다.

저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빈자리를 노인이 메우는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동네 유치원, 초등학교 자리에는 어느새 양로원과 요양병원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의 주목거리입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에 비유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서는 출산율 하락 이유로 전반적인 경쟁 압력과 함께 주거·고용·양육 등 3가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꼽았습니다.

정부와 학계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주거, 교육 문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 사회/교육부 눈밝음 기자 [brighteyes@책폴.com](mailto:brighteyes@책폴.com)

## 배경

### 출생아 연속 감소세 두드러져

2024년 4월 24일 통계청의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입니다. 1년 전보다 658명(3.3퍼센트) 줄어드는 등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2월 사망자 수는 2만 9977명으로 1년 전보다 9.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 관점

### “문제는 돈이 아니야!” 목소리도

‘둘째 낳으면 300만 원’, ‘부모 급여 확대’, ‘대출 저금리 혜택’. 정부에서 이렇게 출생 관련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경쟁에 따른 압력, 고용 및 주거, 양육을 둘러싼 불안감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을 높이고, 집값도 안정화하고, 수도권 위주의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출산'과 '출생'의 차이부터 공부해요!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출산’이 아닌 ‘출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음’, ‘출생’은 ‘세상에 나옴’이라는 뜻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시선을 둔다면, ‘저출생’은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구조에 주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바라봐야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덕분에 만나는 시사 용어

#### • 인구 절벽

저출생, 인구 관련 기사를 보면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인구 절벽은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절벽이 깎인 모습처럼 역삼각형 분포를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2014년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고령 인구(만 64세 이상)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죠. 2024년 ‘트리플 인구 절벽’을 맞는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봐야겠죠?



### 수리수리 논술이

**Q1.** ‘트리플 인구 절벽’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기사를 읽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

**Q2.**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사에서 관련 통계나 사례 등을 찾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다른 온라인 기사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

**Q3.**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두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아이 수가 줄어 들고 있다는데...



|    | 주장                                   | 주장에 대한 이유나 부연 설명                                                                                                                      |
|----|--------------------------------------|---------------------------------------------------------------------------------------------------------------------------------------|
| 진석 | ○경제적인 지원은 필요해요!                      | ○저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사교육비도 들어가고요. 그런 점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해결 방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 송현 |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 ○저희 엄마도 저 낳으면서 회사를 관두셨거든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세상 아닌가요. 아이 한 명 낳는다고 일을 그만두게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자녀 없이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
|    |                                      |                                                                                                                                       |





# 로봇이 빼앗은 내 일자리

## 이슈

### 고객 대면 업종 종사자 10년째 감소세

요즘 웬만한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무인 주문기를 도입하는 매장이 늘면서 판매직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통계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취업자 중 판매 종사자는 262만 1000명. 2013년과 비교하면 45만 30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판매 종사자는 주로 고객과 직접 대면으로 영업하는 직종을 뜻합니다.

약 10년 사이 판매 종사자가 줄어든 이유로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의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며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자영업자들은 “기계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인건비보다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2023년 발표한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고용 계획을 ‘축소한다’는 소상공인은 65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대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으로 자동화하거나, 셀프바 또는 무인 운영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최근 키오스크를 도입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이유도 있지만 키오스크를 도입한 이후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더 많은 주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러모로 키오스크 선택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경제부 이진실 기자 [honest@책폴.com](mailto:honest@책폴.com)  
사회/교육부 눈밝음 기자 [brighteyes@책폴.com](mailto:brighteyes@책폴.com)

## 배경

### '무인 단말기'로 통하는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본래 옥외에 설치된 대형 천막이나 현관을 뜻하는 튀르키예어에서 유래한 말로, '판매대', '소형 매점'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죠. 키오스크는 일반적으로 손을 화면에 접촉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기를 통해 구매·발권·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점

### 인건비 줄여 줘 vs. 일자리 사라져

판매직 일자리에 등장한 키오스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장점이 꽤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24시간 가동할 경우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반기고 있죠. 이 기기는 매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용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마트, 극장 등에 가면 계산원이 있었던 자리에 키오스크가 놓인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에게 불편한 서비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키오스크는 오히려 불편한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 세대 중에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주문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한편, 현재 대다수 키오스크는 어른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어린이나 휠체어 탄 사람이 쓰기에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이 없는 키오스크도 있습니다. “키오스크 대중화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덕분에 만나는 시사 용어

#### • 최저임금

자영업자 중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아요. 여기서 ‘최저임금’이란? 한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임금 최저액을 뜻해요.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해야 하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랍니다.



### 수리수리 논술이

**Q1.** 판매직 일자리가 왜 줄고 있을까요? 기사를 읽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

**Q2.** 키오스크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기사에서 찾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다른 온라인 기사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

**Q3.** 키오스크가 등장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두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그 카페에 키오스크 설치했더라...



|    | 주장                    | 주장에 대한 이유나 부연 설명                                                                                                                     |
|----|-----------------------|--------------------------------------------------------------------------------------------------------------------------------------|
| 라엘 | ○빠르고 편한 시스템!<br>대환영!  | ○웰컴! 웰컴! 완전 환영! 대박 환영! 아르바이트생이 계산하는 것보다 키오스크가 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좋아요!                                                          |
| 윤슬 | ○저는 조금 반대하는<br>입장이에요. | ○왜 '조금'이냐면요. 저는 편리하긴 한데 저희 할머니는 이런 기계 앞에 서면 울렁증이 생긴다고 하세요. 노인 중에는 그런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한 대 있으면 계산을 해 주시는 판매원도 한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    |                       |                                                                                                                                      |



환경

그린워싱

## 무늬만 친환경, 가면을 벗어요!

이슈

### 가짜 친환경, '위장 홍보'에 속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겉으로만 친환경 제품·서비스를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기업이 2020년 45개사에서 2023년 2676개사로 4년 만에 6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을 생각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상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졌단 이야기죠.



무늬만 친환경인 기업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

다. 한 커피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리유저블 컵' 사용을 유도해 왔습니다. 리유저블 컵이란, 재질이 특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이죠. 환경 단체들은 "리유저블 컵 재질은 대부분 폴리프로필렌(PP)으로 된 일반 플라스틱"이라며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고 새로운 플라스틱 쓰레기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음료 회사는 2023년 6월 플라스틱 병 라벨에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동물 그림을 넣어 자사 생수 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이 생수를' 사서 마시면 해양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 측은 "이런 현상은 생활 소비재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건설·철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견되며 단순 환경 친화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교육부 눈밝음 기자 [brighteyes@책폴.com](mailto:brighteyes@책폴.com)

정치/경제부 이진실 기자 [honest@책폴.com](mailto:honest@책폴.com)

## 배경

###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을 아시나요?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걸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입니다. 환경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죠. 이를 두고 '위장 환경주의', '친환경 위장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는 축소시키면서 재활용 등 일부 과정은 강조하여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이죠. 그린워싱과 비슷한 의미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뜻하는 '그린 버블(green bubble)', 즉 '녹색 거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 관점

### 포장된 거짓 정보, 영향 큼니다

2020년 환경부가 기업 광고를 그린워싱으로 지적한 사례는 110건에서 2021년 두 배 이상인 272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16.7배가 더 증가한 455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속임수네” 정도의 반응으로 그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비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거짓 광고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 없나요?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는 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나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현재 국내 법규상 과대 포장 및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범위나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선 “기업들이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할 만한 매우 현실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덕분에 만나는 시사 용어

#### • ESG 경영

‘기업들, 그린 워싱 말고 ESG 경영해야’ 그린워싱과 관련해 늘 따라 나오는 말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이란,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입니다.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린워싱은 이 중에서도 ‘친환경’과 관련이 있겠지요?



### 수리수리 논술이

**Q1.** ‘그린워싱’이란 무엇인가요? 기사를 읽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

**Q2.** 그린워싱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사를 읽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더해 인터넷에서 다른 사례들도 더 찾아보세요.

---



---

**Q3.** 그린워싱 관련 뉴스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래 두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그린워싱, 어떻게 바라보세요?



|    | 주장                 | 주장에 대한 이유나 부연 설명                                                                                                   |
|----|--------------------|--------------------------------------------------------------------------------------------------------------------|
| 지연 | ○반드시 처벌해야죠!        |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자신들이 친환경적인 척 홍보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 거니까요. |
| 수혁 | ○명단 공개하고, 벌금 물려야죠! | ○정부가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들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벌금을 세게 물려야 해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잖아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짓 아닌가요? 벌을 받아야죠.          |
|    |                    |                                                                                                                    |





## 보고 또 봐도 모자라... 도파민 못 멈추겠어!...

### 이슈

### "도파민 돈다!" 숏폼과 릴스에 빠진 사람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재미있다”라는 말 대신 “도파민 돈다!”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도파민이란 단어 언급량은 2022년 1월 대비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도파민은 뇌신경 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강한 자극 또는 기존의 패턴과 다른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과 게임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뜻하는 ‘파밍(farming)’을 합친, ‘도파밍(dofarming)’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재미와 즐거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회현상을 의미합니다.

시대 변화가 빠른 만큼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자극 요소들 중에서도 더 자극이 강한 콘텐츠를 찾고 이에 몰입합니다. 사람들은 도파민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길이가 짧은 콘텐츠)’을 찾는 행동을 손꼽습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없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중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문화/스포츠/연예부 안테나 기자 antenna@책폴.com

## 배경

### 모바일 기기 등장으로 '더 빠르게!'

전문가들은 도파밍이 트렌드로 떠오른 배경으로 '모바일기기 보급'을 언급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개인마다 모바일기기를 하나씩 손에 쥐게 되면서 사람들은 '문자 언어'를 넘어 '영상 언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런 영상 언어는 더 빠르고 즉각적인 흥미를 주는 콘텐츠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 관점

### 읽고 생각하는 능력 떨어질까 걱정

도파밍 현상이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이른바 '팝콘 브레인 (popcorn brain)'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팝콘 브레인은 옥수수에 열을 가하면 툭툭 터지듯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 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워싱턴대학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만든 개념이죠.

전문가들은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자극에 대한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까지 가면 사람들의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책 앞에선 영 집중을 못 하다가, 짧고 자극적인 영상 앞에선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는 문해력, 집중력 저하 문제는 도파밍 현상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겁니다.

## '도파민 디톡스' 들어 보셨나요?

도파밍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한 듯 '도파민 디톡스'도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SNS에서는 자신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량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휴대폰을 넣어 두면 일정 시간 동안 잠금이 설정되어 중간에 열지 못하는 '휴대폰 감옥' 상품도 인기를 끄니다.

### 덕분에 만나는 시사 용어

#### •알파 세대

도파밍 현상의 중심에는 '알파 세대'가 있다고 해요.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 첫 세대로, 부모 세대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특징이죠. 스마트폰과 각종 숏폼 중독은 알파 세대가 맞닥뜨린 문제여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파 세대인가요?



### 수리수리 논술이

**Q1.** '도파밍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



---

**Q2.** ‘도파밍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사를 읽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다른 온라인 기사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

**Q3.** 도파밍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두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도파민 터진다고요?!



|    | 주장                        | 주장에 대한 이유나 부연 설명                                                                                                                     |
|----|---------------------------|--------------------------------------------------------------------------------------------------------------------------------------|
| 찬형 |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저희 부모님도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시간을 제한하세요. 너무 자극적인 데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까 봐 그런 거죠. 도파밍 현상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
| 민서 | ○쇼츠에 빠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원래 문화 현상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맞춰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게 걱정일 수도 있지만 숏폼이나 영상 등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는 시대에 조선시대 사람 같은 소리 아닌가요? |
|    |                           |                                                                                                                                      |



## 이슈

## 아리안 6호 발사 성공... 유럽도 우주 경쟁 가세

“발사!”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강한 화염을 내뿜는 로켓이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우주 발사체 아리안 6호가 발사되는 순간입니다. 유럽우주국은 2024년 7월 9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있는 기아나우주센터에서 프랑스 아리안그룹이 개발한 아리안 6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유럽우주국은 저렴한 비용을 앞세운 스페이스 X 등의 민간 우주 기업과의 경쟁이 힘들어지자, 민간 회사인 아리안그룹과 손잡고 차세대 로켓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미국과 중국 등 우주개발에 앞장서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유럽우주국의 경우 22개국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아리안 6호 발사 성공으로 유럽우주국은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항공 우주 기술력을 한층 더 향상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우주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우주라는 공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제프 아슈바허 유럽우주국 사무총장은 “신세대 아리안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유럽이 우주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과학·환경부 송시아 기자 worldwide@책폴.com

## 배경

### 개발 확정 10년 만에 발사 성공했어요

아리안 6호는 유럽우주국이 28년 만에 선보이는 신형 로켓입니다. 인공 위성을 운송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하고 있죠. 이 로켓은 높이 63미터에 이르는 대형 발사체로 보조 로켓까지 모두 장착했을 때 그 무게가 900톤에 달합니다. 지구 저궤도로 운송할 수 있는 무게는 최대 21.6톤이고요. 아리안 6호가 개발 방침을 확정한 게 2014년이었으니 이번 발사 성공은 개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아리안 6호는 2026년에 더 발사될 예정입니다.

## 관점

### 풍부한 자원 개발해야 vs. 환경오염 어쩌나

우주는 자원의 보고로써 미래 경제의 큰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에는 핵융합 원료인 ‘헬륨-3’를 비롯해 정밀한 전자기기를 만들 때 필요한 원소도 풍부하다고 해요.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도 직접 얻을 수 있고요. 우주를 개발하여 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더 많이 올리면 지금보다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우주개발을 통해 지구와 생명을 이해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이들도 많아요. 이런 배경에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우주개발을 하고 있죠. 반면, 우주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로켓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소음 등이 지구 대기와 우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도 우주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누리호'라는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지구 상공 수백 킬로미터에 인공위성을 올려놓기 위해 한국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죠. 2021년 10월 1차 발사 당시 궤도에 오르는 데 실패했지만, 2022년 6월 2차, 2023년 5월 3차 발사까지 성공했고, 이후 2027년까지 총 6번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받아야 했던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10년 만에 거둔 성과여서 더욱 특별합니다.

### 덕분에 만나는 시사 용어

#### • 스푸트니크 1호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이 우주로 간 것은 언제? 바로 1957년 10월 4일! 이날 구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어요. 스푸트니크 1호는 발사 성공 후 약 3주 동안 지구로 신호음을 보내왔죠. 이후 인류는 우주개발에 매진했고, 현재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1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지구 표면에서 420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 축구장만 한 크기의 국제우주정거장(ISS)도 건설했고요. 참고로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어로 '여행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 수리수리 논술이

**Q1.** 각각 '아리안 6호', '누리호'는 어떤 로켓을 말하나요? 기사를 읽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

**Q2.**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 경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를 읽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더해 인터넷에서 다른 사례들도 더 찾아보세요.

---



---

**Q3.** ‘우주 경쟁 시대’ 관련 뉴스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래 두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이제 우주에서 만나요!



|    | 주장                          | 주장에 대한 이유나 부연 설명                                                                                                |
|----|-----------------------------|-----------------------------------------------------------------------------------------------------------------|
| 준혁 | ○로켓 연구에 국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해요! | ○우주에는 귀한 자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 자원들을 빨리 발굴하고 활용해야 발전할 수 있고, 선진국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
| 민서 | ○로켓 발사 때 나오는 탄소는 안 보이나요?    | ○로켓 발사 한 번 하는데 엄청난 탄소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켓을 발사하는 데 생기는 환경 오염 문제를 국제 사회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    |                             |                                                                                                                 |